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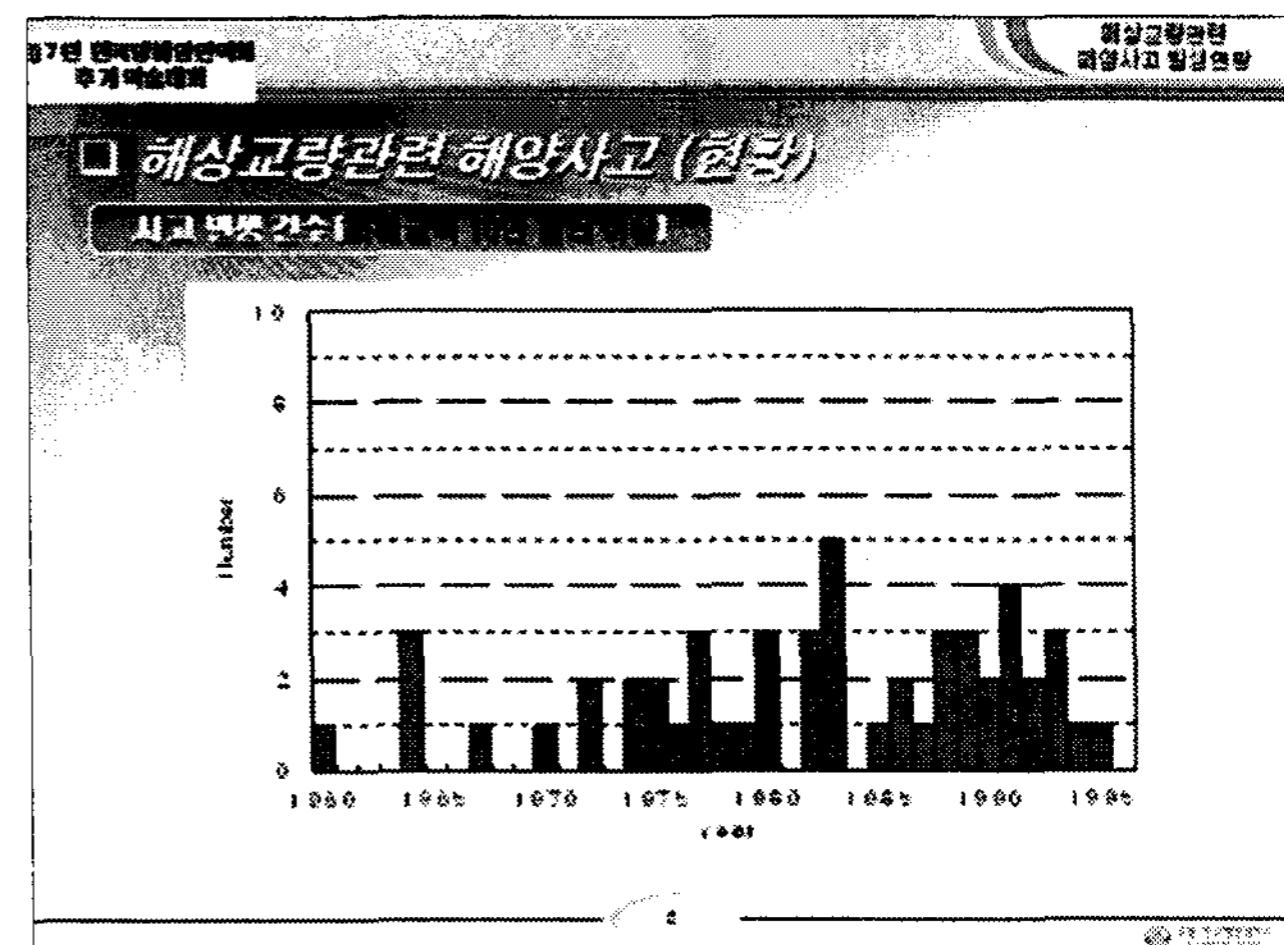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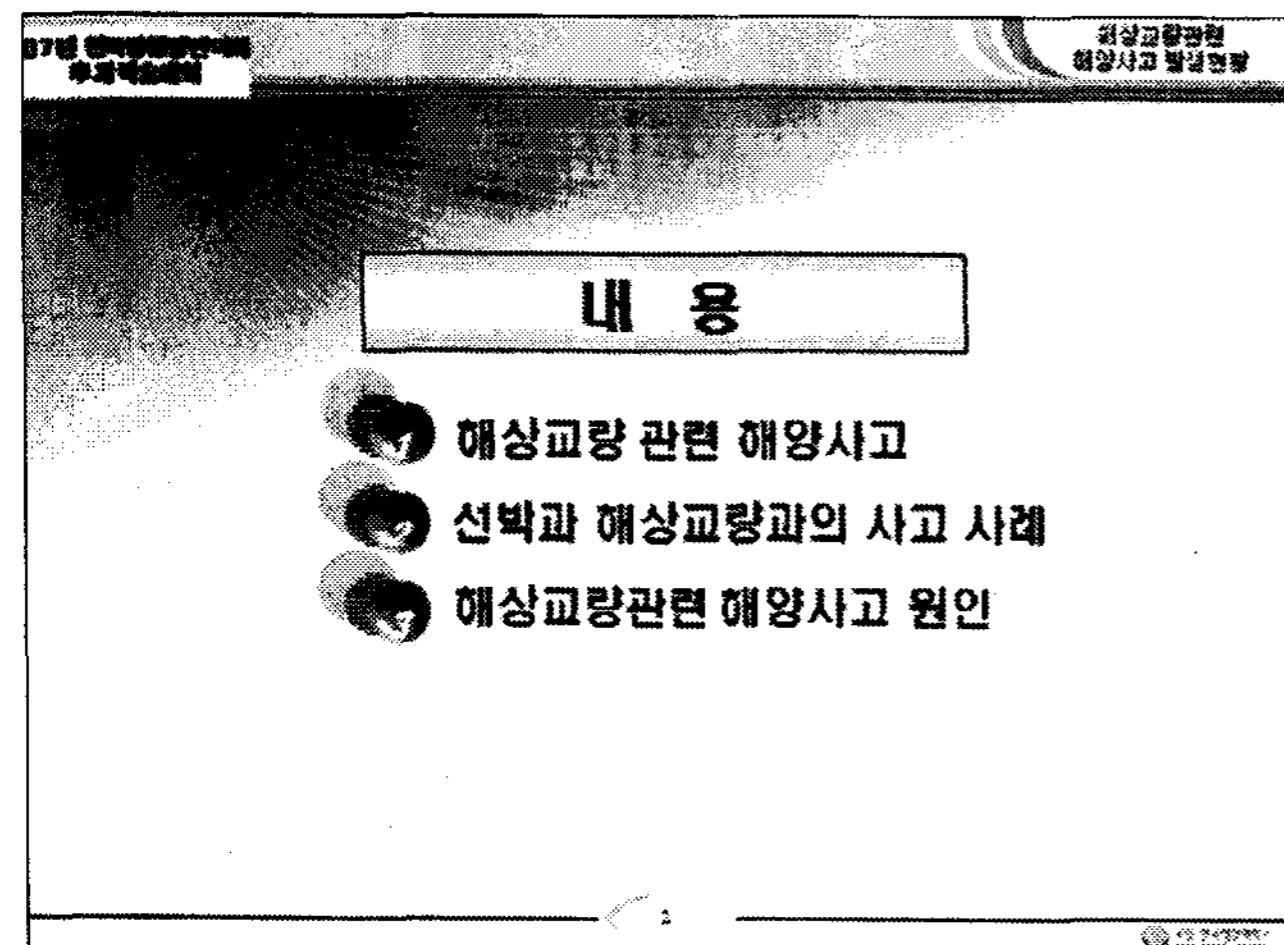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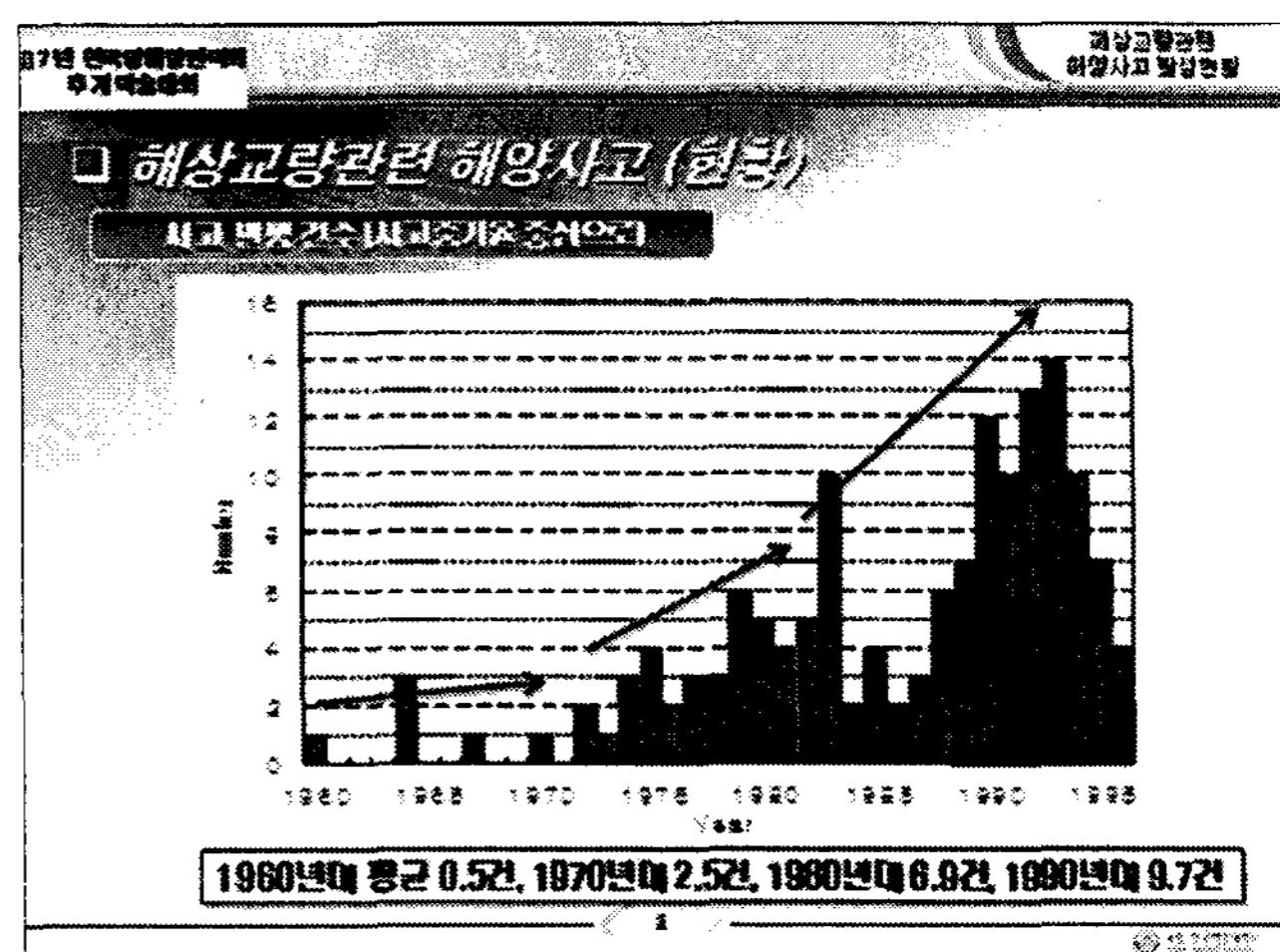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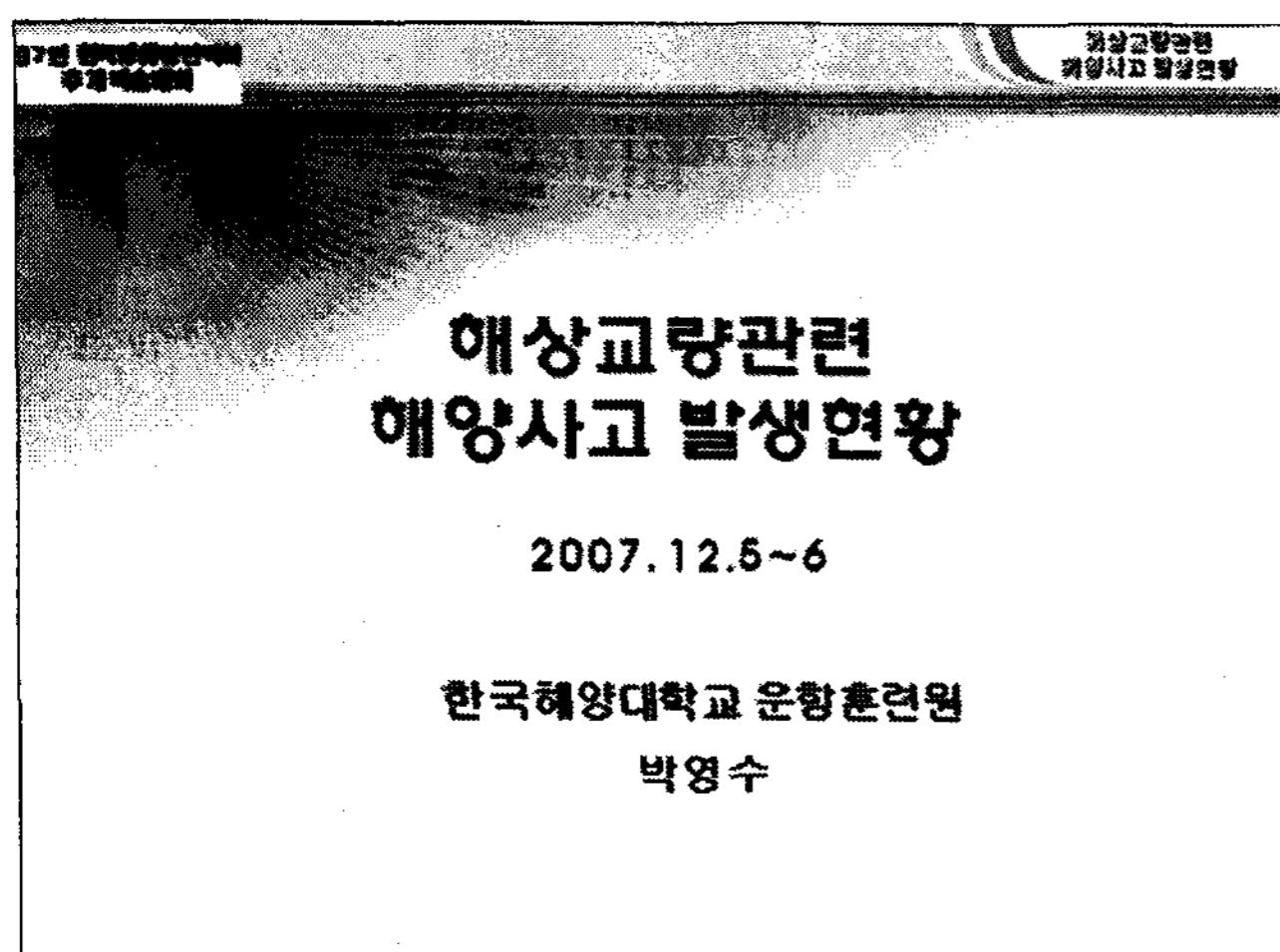
해상교량관련 해양사고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

* 박영수* · 이윤석 *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교수

요약 : 현재 세계 각지에는 선박이 통항하는 항행수역에 해상교량이 건설되고 있다. 이와 동반하여 선박이 해상교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인천 제2연륙교의 완성과 더불어 선박이 통항하는 항행수역에 해상교량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역에 건설된 해상교량은 선박의 항행수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타와 주기관의 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교량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 및 우리나라의 해상교량과 관련한 해양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해상교량, 해양사고, 교량위치, 진입 직선거리, 사고 원인



* 교신저자 : 박영수(종신회원) youngsoo@hhu.ac.kr

* 이윤석(종신회원) lys@hhu.ac.kr

**07년 해상교통안전대책
주제 해양사고**

해상교통관련 해양사고 (현황)

사고별 분류별 현황

성인 해양교통 사고

해상교통관련 해양사고 (분석)

충돌사고 유형

- 교각충돌 사고 10건 발생
- 교량상관 충돌사고는 21건 발생. 이중 12건이 운행지와 항만장치간의 의사소통 문제 (기상증명지 등과 충돌하고 무시)로 예기된 사고

해상교통 전후 충분한 직선형로 미복보

- 해상교통은 충분한 직선형로를 설치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Ship Collision with Bridge**라고 일으나 지정부상상 그림지 못한 경우에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일본의 Ship 교수는 많은 해상교통 관련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부록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에서 교량까지의 직선거리가 짧았다고 지적. 교량까지의 직선거리가 8L 이상일 경우 충돌위험이 높다고 분석

**07년 해상교통안전대책
주제 해양사고**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미국, 유럽)

[사례1] 1975년 1월, Hobart, Tasman Bridge

창식분단식이 예상 변형점보다 서점으로 끊어나면서 무연단 20도를 사용함.
이 대 예상보다 큰 하중의 작용으로 활동률 벗어나 풍파로 진탕. F-10 Aeolian으로 우회구 기속- 표방화 등을 두 개의 표각밀판 상판3개 주택임

**07년 해상교통안전대책
주제 해양사고**

해상교통관련 해양사고 (분석)

충돌사고 유형

- 교각충돌 사고 10건 발생
- 교량상관 충돌사고는 21건 발생. 이중 12건이 운행지와 항만장치간의 의사소통 문제 (기상증명지 등과 충돌하고 무시)로 예기된 사고

해상교통 전후 충분한 직선형로 미복보

- 해상교통은 충분한 직선형로를 설치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Ship Collision with Bridge**라고 일으나 지정부상상 그림지 못한 경우에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일본의 Ship 교수는 많은 해상교통 관련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부록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에서 교량까지의 직선거리가 짧았다고 지적. 교량까지의 직선거리가 8L 이상일 경우 충돌위험이 높다고 분석

**07년 해상교통안전대책
주제 해양사고**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미국, 유럽)

[사례2] 200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Bay Bridge

인접 충신의 C0600 BUSAN 길이 약 247m 810 feet인 샌프란시스코 Bay Bridge의 2번 교각에 충돌하여 수면 30층 선박우연종류 약 100 feet 40m가 회순되었으며 기름 22만t 바다로 유출됨.
원인: 시장제한경지에서 수면원 지점의 일주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중국선원 출신한 것으로 드는)

**07년 해상교통안전대책
주제 해양사고**

해상교통실사 위치와 산업 직선거리와의 관계

교량 명	주 경간距	전면직선거리(m)	전역길이(m)	D/L	사고 빈사	이재민
Sorsund Bridge, NORWAY	100m	450m	102m	4.17	1963.9	○
Sidney Lanier Bridge, USA	75m	300m	174m	2.34	1972.11	
Rasor Bridge, Canada	117m	1000m	370m	2.86	1975.12	○
Benjamin Harrison Memorial Bridge, USA	72m	1000m	450m	2.20	1977.2	○
Tromso Bridge, Norway	80m	740m	320m	4.16	1977.7	
Granmen Bridge, Norway	50m	500m	250m	2.12	1978.	○
Second Narrows Railay Bridge, Canada	132m	1350m	950m	1.75	1978.10	○
Sunshine Skyway Bridge, USA	203m	1300m	105m	7.55	1980.2	○
Sunshine Skyway Bridge, USA	203m	1300m	105m	6.59	1980.5	○
Newport Bridge, USA	458m	1000m	171m	5.85	1981.2	○
Sidney Lanier Bridge, USA	75m	400m	155m	2.16	1988.5	○

**07년 해상교통안전대책
주제 해양사고**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일본-1)

사고일자	교량명	총길이/신증	손괴상태
55.7.7	大橋戸根半径橋 （海門海橋）	433/일률신	전체- 선수상부가 끊어짐. 선수항고 철수. 선수여부 선지부 손상 다리- 관교부 손상
55.8.1	第三開瀬水門 의 開瀬水門	431/일률신	전체- 선수부 양면의 대구가 끊어짐으로써 물이进来 多根水門: 第三開瀬水門
55.8.3	東夷鐵道	427/기울은반신	전체- 선교. 기관실 일부 손상
55.8.8	老蘇鐵道	187/유조신	전체- 기관실 각인 상단의 폭정부 손상
55.10.11	平川橋(東京・平川)	51/유조신	전체- 일부 손상 다리- 평야부분의 절곡부 일부 손상
55.12.17	福島橋(東福島)	454/일률신	전체- 선교부근 절곡상의 정점의 폴손. 선교 우그리침 다리- 평야부분 폴손 손상
56.1.3	東京港 橋梁部 （東京港橋樁部）	498/일률신	전체- 선수부 약 5m 우그리침 한정부: 3회 폴손

**97년 한국해양안전망
우기 예보대회**

□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원인 분석-일본)

사고원인	화재·화물화의 충돌 건수
전시 충돌분	
선위 미확인	
조선 구직질	1
기상해설 부주의	2
수로조사 출동분	3
운행 분할	1
기타 혼합 피싱	1
기전위험피망	1
작제불명	
항기 기인물 위급 부주의	
운행착각	
기타	
계	8

**97년 한국해양안전망
우기 예보대회**

□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3-2)

[사례7] 2006년 8월, 제1진도대교
해상지침 조사를 위한 작업선이 높이 28m의 굴착기 및 파이프를 쳐재하고, 진도대교 인근 물양장에 청학도중 운행부주의로 조류에 휘둘려 제1진도대교 중앙경간부 측면에 충돌

[사례8] 2007년 4월, 제1진도대교
조력발전소 공사를 위한 해상구조물을 적재하고 통행이던 작업선이 진도대교 통과도중 운행부주의로 조류에 휘둘려 제1진도대교 중앙경간부 측면에 충돌

**97년 한국해양안전망
우기 예보대회**

□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3-3)

[사례1] 1995년 4월, 영도대교
어선 선장호는 63.62톤으로 항내에 장기 정박 중 선박을 비우고 선박연적재선을 소홀히 암으로 떠 계류줄이 절어진 것을 알지 못하여 선체가 파괴됨으로써 부산항 영도다리 제2번 교각과 접촉

[사례2] 구거제대교
해안선 153은에호(72.0톤, 디젤기관 890마력)는 피에인부신 선유 202호(813.0톤, 길이 82.9m, 너비 17.10m, 깊이 3.85m, 기관없음)를 선미에인에는 상대로 거제 성포항 향하여 목포항을 향하고 있던 중, 항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관계로 기항항로 폭 및 강한 조류의 영향 등 연전한 통행여부를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폭 27미터 정도인 구 거제대교 제15번과 제17번 교각사이를 통과하는 영도를 무리하게 항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과 교각의 축력영향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좌선의 되어 부선의 좌면 선수 모서리가 제15번 교각에 접촉.

[사례3] 2003년 9월, 영도대교
제1방파제에 피항 어려운 유조선 147톤인 역암호가 강풍에 침몰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 82경진호(880톤) 등 선박 2척이 전복되었다. 이 충돌로 선박 15척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정에 놓은 첫줄이 풀리면서 표류하기 시작하여 결국 리시아 원양트롤어선 세도보호(800톤)와 소르타풀라호(739톤) 등 대형선박 2척이 영도대교 상판을 들이받음

**97년 한국해양안전망
우기 예보대회**

□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3-4)

[사례1] 2007년 4월, 제1진도대교
우기 7백톤짜리 대형 철재 구조물을 실고 가던 배지선이 제1진도대교와 충돌, 조류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가던 배지선은 물풀목의 틀른 묘스를 이기지 못하고 백어미터를 떠내려간 배지선은 진도대교 상판에 걸구조물이 걸들어면서 멈춰, 발전소 건설을 구조물은 40분 가량 다리에 걸려 있다 바다로 주락 - 교량 관제 필요성

**97년 한국해양안전망
우기 예보대회**

□ 선박과 해상교통과의 사고사례(국내)

[사례1] 2006년 8월, 인천대교
인천대교 교각공사를 위해 투입된 콘크리트 단행선이 백종사리해 빙물에 휘러면서 등전 13번 교각과 충돌

**97년 한국해양안전망
우기 예보대회**

□ 해양사고원인 분석

간접적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강풍, 높무, 폭풍우 - 해상: 강조류, 해빙 - 항로: 갑개구, 수심, 물류망로
직접적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기의 고장 - 예언식 계류식의 절단 - 무인표류 - 조단미스, 선박운항자 등의 부주의